



제목	Persia and Torah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발행일	2001. 1. 1.
저자	James W. Watts(편집자)
출판국가	미국
페이지수	228
ISBN 또는 ISSN	979-1589830157

내용 요약

1984년 피터 프라이(Peter Frei)는 페르시아가 제국 내 여러 지역의 법제화를 승인했다고 주장하면서 에스라 시대에 유대 율법을 발표하는 데에 페르시아 제국이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오래된 이론을 부활시켰다. 이 책은 페르시아의 법제화 승인과 오경에의 적용에 대한 프라이의 주장을 평가하기 위해 2000년 성서학회 연차대회에 모인 패널들의 논문을 편집한 것이다.

블렌킨숍(Joseph Blenkinsopp)은 프라이만큼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지만 페르시아 제국이 오경을 승인했을 가능성을 인정한다. 프라이드(Lisbeth Fried)는 에스라가 페르시아 왕 아르타크세르크세스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후 지역의 페르시아 관리로 임명된 것에 한정된다고 주장함으로써 프라이의 주장에 반박한다. 그레브(Lester Grabbe)는 현재 형태의 오경이 페르시아 시대의 말기에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에스라 전승의 역사성과 에스라의 법에 대한 제국의 승인의 역사성은 의심함으로써 프라이의 주장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다. 크노퍼스(Gary Knoppers)는 페르시아 시대 지역 지도자들이 프라이의 주장보다는 좀 더 많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한다. 레드포드(Donald Redford)는 다리우스가 이집트 법률을 수집한 것은 이집트의 전례를 따른 것이고 결과적으로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기존 전통을 알려준 조치였다고 주장한다. 스카(Jean Louis Ska)는 오경의 초라한 형태를 고려할 때 페르시아의 개입은 없었을 것이며 다만 그 오경이 제2성전 공동체의 공식문서이기 때문에 페르시아 시대 유대인들 사이에서 규범적인 지위를 획득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패널들은 프라이의 주장에 대해 부분적으로 동의하고 부분적으로 반박한다.